

노동시장 격차 해소를 위한 초기업 교섭 활성화에 노사 공동대응 촉구

2차 중앙교섭, 올해 요구안 설명 ... 사용자협의회 “요구안이 어느해보다 무겁다”



금속노조가 2차 중앙교섭을 열고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에 올해 노조 요구안을 설명했다.

금속노조와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아래 사용자협의회)는 4월 22일 오후 서울 정동 금속노조 회의실에서 2026년 2차 중앙교섭을 열었다.

노조는 이 자리에서 ▲금속산업 최저임금 ▲초기업 교섭 활성화 노사 공동 대정부 요구 ▲인공지능(AI) 도입 시 노동인권 및 고용 보호 ▲국민연금 수급과 연동한 정년 퇴직 등 중앙교섭 네가지 요구를 설명했다.

박상만 금속노조 위원장은 교섭을 시작하며 진주 CU 물류센터 앞에서 투쟁하다 사망하신 고 서광석 화물연대 조합원의 명복을 빌었다.

박위원장은 “원청교섭에 불응하는 BGF자본 규탄투쟁을 벌이던 조합원이 경찰의 지시하에 진행된 출차를 저지하다가 사망하였으므로 이 사건은 명백히 자본과 정부의 동조하에 벌어진 살인사건”이라고 규정했다.

화물연대 조합원의 사망사건에 정부도 책임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중앙교섭 요구안에 포함되어 있는 초기업교섭 활성화를 위한 노

사공동 대정부요구안부터 추진하고 다른 안건들도 심도있게 논의하고자 제안했다.

박근형 사용자협의회 회장은 인사말에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고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 사용자 모두 명복을 빈다”고 말문을 열었다.

박상만 위원장의 제안에 대해서는 “사용자협의회는 요구안 설명을 듣고 워크숍을 통해 요구안 분석 및 제시안 마련을 위한 고민을 나눈다. 제안하신 노사공동 대정부 요구안은 고민할 부분이 적지 않아서 오늘은 요구안 설명을 충분히 듣고 다음 교섭에서 질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상민 노조 정책실장이 “올해는 요구안을 금속산별협약 개정요구와 개정 외 요구로 나누었다”며 요구안 설명을 시작했다.

금속노조는 금속산별협약 개정요구로 ▲금속산업 최저임금을, 금속산별협약 개정 외 요구로 ▲초기업 교섭 활성화 노사 공동 대정부 요

구 ▲인공지능(AI) 도입 시 노동인권 및 고용 보호 ▲국민연금 수급과 연동한 정년퇴직을 제시했다.

금속노조는 내년도 금속산업 최저임금을 통상시급 11,540원과 월 통상임금 2,608,040원 중 높은 금액으로 적용할 것을 요구한다.

김상민 실장은 지난해 중앙교섭에서 합의한 올해 금속산업 최저임금은 작년 대비 2.66%에 불과해 법정 최저임금 인상률인 2.89%에도 못미치는 수준이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올해는 지난해보다 반드시 큰 폭의 인상이 필요하다는 게 노조의 입장을 확실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산별협약개정 외 요구 첫 번째는 초기업 교섭 활성화 노사 공동 대정부 요구다.

심화하고 있는 한국사회 노동시장 불평등이 우리 사회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은 노동조합뿐 아니라 정부와 경영계에서도 동일하게 진단한다. 국제적으로 실증된 노동시장 격차해소의 유력한 방안은 초기업 교섭을 활성화하는 것이다.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123대 국정과제에 초기업교섭 활성화가 포함된 만큼 초기업 교섭 활성화에 노조 뿐 아니라 사용자에게도 이익이 되도록 활용해보자는 것이 노사 공동 대정부 요구의 핵심 취지이다.

인공지능(AI) 도입 시 노동인권 및 고용보호 요구에는 ▲AI 기술을



도입하고자 할 때 노사합의를 전제로 도입할 것 ▲AI 기술 관련 노조가 정보를 요청할 시 제공할 것 등의 내용을 담았다.

국민연금 수급과 연동한 정년퇴직 조항은 정년과 연금 수급 간 소득공백을 해소하자는 취지다.

한국은 2025년부터 초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가 20% 이상)에 진입했다. 현재 추세라면 2072년부터 생산연령인구 100명이 부양해야 하는 노인의 수는 118.5명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 될 전망이다.

반면 OECD 국가 중 한국과 일본만 연금수급보다 정년이 먼저 도래하고, 일본은 계속고용이 의무화되어 있어 소득공백이 존재하는 국가는 한국뿐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연금 수급이 정년퇴직 시점 사이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정년퇴직 시점을 조정하자는 것이 요구의 핵심 내용이다.

노조 요구안 설명을 들은 박근형

사용자협의회장은 “설명 잘 들었다. 요구안이 많지는 않은데 어느 해보다 무겁다. 20만 중 1만8천명도 안되는 68개사가 선제적으로 감당할 수 있겠는지 상당히 고민스럽다. 내부적으로 고민할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을 저희도 고민하면서 노사 공동으로 성장할 수 있는 지혜를 만드는 고민을 해보겠다” 라고 말했다.

박상만 위원장은 마무리 발언으로 “거대자본의 횡포를 막기위해 공동대응을 하자는 것이고, 공정분배에는 정부의 역할도 있다. 우리의 미래를 지켜내기 위해 같이 고민하고 노력하자는 차원에서 제안을 드린다. 6.3 선거 전 노사공동으로 합의된 부분만이라도 공동기자회견, 대정부 요구안 발송 등을 진행하자. 차기 교섭에는 긍정적인 답을 가져오시길 부탁한다” 고 당부했다.

금속노조와 사용자협의회는 3차 중앙교섭을 4월28일 노조 회의실에서 연다.